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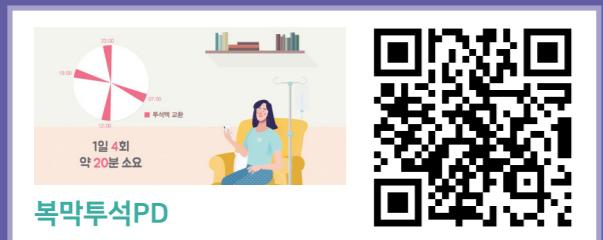
대한신장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
교육영상 보러가기



<https://youtu.be/XzzIQVjjFVM>



<https://youtu.be/AzKcVJVcOKI>



<https://youtu.be/TgpYBeJUxPE>



주소 (06626)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1401호 (서초동 현대기림오피스텔)
www.ksn.or.kr Tel 02)3486-8736 Fax 02)3486-8737 E-mail ksn@ksn.or.kr

※ 대한신장학회 '다행' 캠페인은 만성콩팥병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공동의사결정을 위한 환자교육 캠페인입니다.
※ 본 자료는 대한신장학회 '다행' 캠페인 환자 만족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, 본 자료를 해당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제3자에게 배포, 제공하거나
저작자의 하락없이 이 책의 일부 또는 전체를 무단 복제, 전재, 복제, 배포, 전송, 출판, 출판권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.
Copyright© 2021 By 대한신장학회. All right reserved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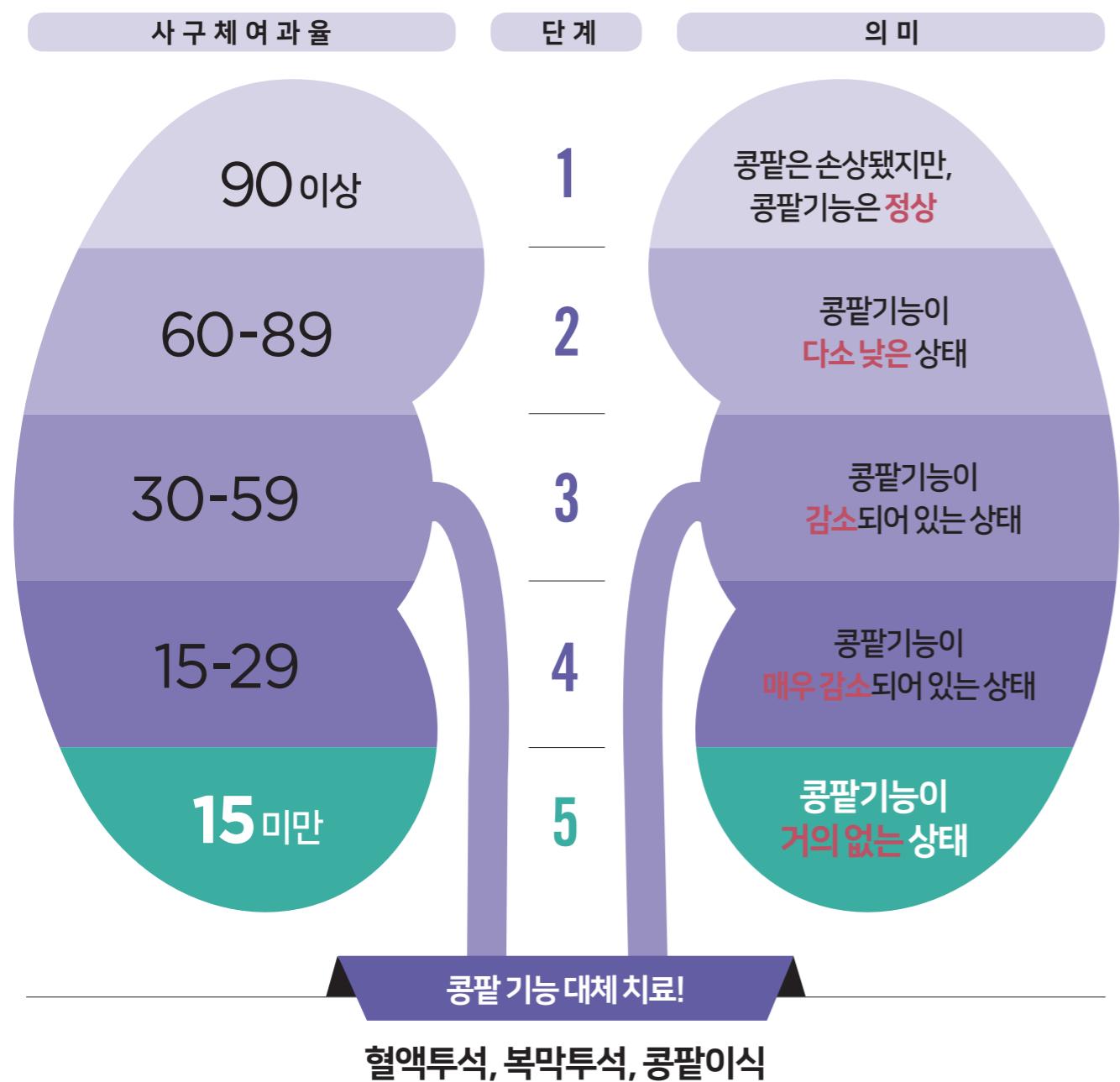
만성콩팥병 5기 환자 교육

“내게 맞는 치료법은?”

- ♣ 복막투석 vs 혈액투석
- ♣ 환자 스스로 하는 ‘복막투석’
- ♣ 병원 의료진에게 받는 ‘혈액투석’

만성콩팥병 5기 환자를 위한 “치료의 핵심은?”

만성콩팥병은 **사구체여과율**을 측정하여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
나는 몇 단계에 해당하는지 알아두세요.



*사구체여과율(GFR)이란?

: 신장의 사구체가 혈액을 걸러 내는 정도로 신장 기능을 측정하는 지표. 정상치는 $118.0 \pm 2.78 \text{mL/분}$ 입니다.

당신에게 맞는 투석 방법은?

혈액투석 vs 복막투석



병원에서 하는 '혈액투석'

장소	병원에서
횟수	주 3회 1회당 4시간씩 소요 야간, 심야투석으로 시간조정 가능
관리	식이요법, 수분 섭취 제한 필수

집에서 하는 '복막투석'

장소	집, 직장, 학교 등 어디서나
횟수	손투석은 매일 4회 (1회당 20분씩) 기계투석은 매일 밤수면 중 1회 (8~9시간)
관리	복막투석관 삽입된 채로 생활 목욕, 수영, 옷차림 등 제한



병원에서 하는 '혈액투석'

편한 점



- 1 의료진과 자주 만날 수 있다.
- 2 목욕이나 수영에 불편이 없다.
- 3 집에 투석기계를 놓을 필요 없다.
- 4 임신 중에도 투석이 가능하다.
- 5 체형 등 외관상의 변화가 없다.

불편한 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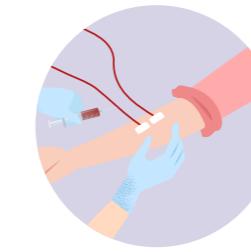


- 1 정해진 일정에 맞춰, 주 3회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.
- 2 혈액투석 1회당 4시간 이상 소요된다.
- 3 개인 일정과 병원 혈액투석실 일정간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.
(병원에 따라 야간/심야 투석실도 운영)
- 4 여행 시, 목적지에 투석 가능한 병원이 있는지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.
- 5 투석하지 않는 동안, 수분과 칼륨, 나트륨 섭취에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.
- 6 동정맥루가 다치거나 막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


집에서 하는 '복막투석'

편한 점



- 1 주삿바늘을 꽂을 필요가 없다.
- 2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낸다.
- 3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 싶다.
- 4 스스로 일상을 조절할 수 있다.
- 5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된다.

불편한 점



- 1 매일 6시간 간격으로, 4회, 20분씩 소요된다.
(단, 기계투석은 야간 수면시간 활용해 1회만 투석 가능)
- 2 환자/보호자가 스스로 투석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.
- 3 샤워, 수영 시 복막투석관의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.
- 4 복막투석관이 옷 밖으로 보이거나, 티가 날 수 있다.
- 5 체중 및 복부 둘레가 증가해 체형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.
- 6 청결한 투석 공간과 투석액, 물품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다.



내게 맞는 투석 방법 선택하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항목은?

건강관련

(12문항)

- 나는 내 심장을 보호하고 싶다.
- 나는 나의 뼈, 관절과 신경을 보호하고 싶다.
- 나는 나의 의지대로 살고 싶다.
- 나는 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.
- 나는 가능한 한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싶다.
- 나는 하루 정도는 투석 부담 없이 지내고 싶다.
- 나는 매일 투석을 하고 싶지는 않다.
- 나는 정기적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싶다.
- 나는 내 스스로가 내 일상을 조절할 수 있다.
- 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.
- 나는 일상에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다.
- 나는 운동을 즐긴다.



투석환경

(12문항)

- 나는 가능한 한 병원을 덜 가고 싶다.
- 나는 전문가의 투석이 더 편하다.
- 나는 익숙한 것이 좋다.
- 나는 환경 변화를 싫어한다.
- 나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한다.
- 나는 TV 보는 것을 좋아한다.
- 나는 오랜 시간 누워있는 것이 힘들다.
- 나는 주삿바늘을 무서워한다.
- 나는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편이다.
- 나는 내 일상을 배우자에게 많이 의존하는 편이다.
- 나는 나를 보살펴 줄 사람이 필요하다.
- 나는 투석기계를 내 집에 들어놓고 싶지 않다.

일상생활

(11문항)

- 나는 가능한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고 싶다.
- 나는 돌봐야 할 노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.
- 나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.
- 나는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다녀야 한다.
-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마실 수 있어야 한다.
- 나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목욕을 자주 하는 편이다.
- 나는 외모에 신경 쓰는 편이다.
- 나는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.
- 나에게는 나를 돌봐 줄 사람이 없다.
- 나는 여행을 좋아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.
- 나는 해외여행을 많이 다닌다.